

## “ 지붕 위에 난 풀 ”

### ■ 이종윤 원로목사

높은 자리나 탐하고 남의 눈에 띄어 나타나기를 좋아하며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은 마치 지붕 위에 난 풀과 같아서 보기에 어설피다. 모든 것은 제자리가 있고 알맞아야 어울린다. 분수를 모르고 남을 제치기 위해서 있는 말 없는 말 가리지 않고 쏟아내면서 함부로 덤비는 모습은 지붕 위에 난 풀처럼 보기에 괴롭고 받을 심판을 생각하면 애처롭기까지 하다.

풀이라고 해서 다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축을 위한 목초나 사람을 위한 식용도 있고 농사를 위한 퇴비도 있다. 그러나 지붕 위의 풀은 퇴비나 사료, 심지어 땀감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고 관상에 해롭고 건물 유지에도 유해할 뿐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나 사람을 위해서 쓸모 없는 이가 되거나 해로운 존재가 된다면 불행한 일이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 자리가 있다. 머리카락은 머리 위에 붙어 있을 때 제 값이 있다. 그것이 멍장 속에 자리를 잡으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된다. 제자리를 이탈하고 남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들 때문에 우리 사회나 교회가 어지러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주신 분량 따라 제자리를 찾아 수고의 땀을 각자 흘려야 한다.

풍부한 지식과 지략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짓 없는 정직과 자신의 그릇을 아는 사람이 그림다. 조화와 질서가 있는 세상이 창조주에 의해 주어졌지만 인간의 교만과 불신앙으로 피조물들이 제자리를 상실한 때부터 역사는 혼돈에 빠지게 되었다.

얇을 자리 설자리를 분별하여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야 남의 짐도 져 줄 수 있을 것이다.

사사기에 나오는 요담의 우화 한 토막이 생각난다. 하루는 나무들이 모여 회의하여 감람나무에게 우리 왕이 되라 했다. 감람나무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하면서 거절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도 같은 제안을 받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요동할 수 없다 했다. 자기 분수를 아는 이들이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나를 왕으로 삼으려면 내 그늘 아래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르겠다고 했다. 제자리를 벗어난 악하고 준비되지 않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다.

뿌리가 깊지 못하고 그 양도 얼마 되지 못하며 제자리도 찾지 못한 지붕 위의 풀보다는 어둠을 밝히는 등잔의 기름을 짜내는 모퉁이의 감람나무가 되게 하소서 해야 한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 두 번째 주일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Youtube 서울교회 계정을 통해 드리게 됩니다.

주일예배 1부-9시, 2부-11시20분, 3부-오후2시에, 찬양예배-오후 5시에 예배 영상이 Youtube를 통해 송출됩니다.  
실시간 예배는 30분전부터 송출하오니 미리 들어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순서 및 영상예배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0110\\_sermon.jpg](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0110_sermon.jpg)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5)  
정상시보다 더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영으로 하나되어 함께 예배드리으로써 비대면 시대를 극복하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서울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 서울교회 당회 드림

<b>우리의 비전 (vision)</b>	<b>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b>	<b>서울교회QR코드</b> 
	<b>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b>	
<b>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b>		

<b>부 목 사</b>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b>전도사</b> 박미라 안용곤 <b>선 교 사</b> 권경혜(서아시아), 이은준 · 강혜정, 양재성 · 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 · 김희경, 우상식 · 김정욱(인도), 서광중 · 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 · 황경혜(말라위), 김영호 · 서향정(러시아), 허창범 · 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 · 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스브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토, 수세리, 수바스, 알로롱, 비시누뵤도, 보디소포, 린툼,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상진 · 홍성임(팔라우), 이재훈 · 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 · 박재연(마다가스카르)	<b>교육전도사</b> 김은숙 양하림 <b>협동목사</b>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	---

	천국시민 양성 · 만민에게 전도 · 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b>서울교회</b>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b>이 종 윤</b>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a href="http://www.seoulchurch.or.kr/">http://www.seoulchurch.or.kr/</a>	

## “ 사귀어야 할 자와 단절해야 할 자 ”

### ■ 고전 5:9-13

암울했던 지난 해 에도 빛을 비추어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해 주시는 은총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역사는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에 쉽게 무너지고 요동치는 우리들이 어떻게 견고하게 서서 믿음의 진보와 영적 우위를 달성하는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일 것입니다.

### 1. 가까이 하고 싶은 자가 되라

성도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을 찾기보다 자기가 먼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외모와 스펙만 따지는 사람의 판단에는 항상 오류가 발생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배신과 배반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판단과 행하심에 있어서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 개개인이 다 가까이 해야 할 사람 혹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가까이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정말로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고 사랑하고 닮고 싶은 사람이 것입니다. 내가 누구여간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려면 내 자신의 말과 행동이 신뢰를 줄만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 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려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분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불꽃같은 눈으로 온 땅을 감찰하시고 고통과 환난의 이름 속에서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며 억울한 일을 헤아리시고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시며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닮고 싶은 소원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변함이 없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누구나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목사라고 해서 다 믿고 따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절하거나 입 맞추지 아니한 남은 자들이 있었듯이 불신이 팽배한 사회이지만 여전히 진실한 주의 종들이 있고 참된 성도들 또한 존재합니다.

### 2. 믿음의 깊이와 영적 성숙의 가치를 귀히 여라

달관(達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경지에 이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상황의 막힘과 통함에 구애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넘어서 마음으로 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사라고 해서 혹은 장로나 권사라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죄의 유혹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5장 전체에서 지적하며 성적 부도덕한 일에 빠져있는 자들, 회개하지도 않고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기며 홍보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영적 힘을 잃게 하는 최고의 비수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 특히 회개하지도 않고 그런 죄악에서 돌이키지도 않은 자들을 용납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축이는 것이요 용납하는 내 스스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자들을 그의 집에 들이지 않으십니다. 성도도 한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불가피한 접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악인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덤적 주저앉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11절)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힘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축근이 되기를 힘쓰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근이 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은혜의 수단, 곧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 생활에 더 시간을 쏟으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 맺는 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거나 우리의 거룩성을 훼손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쇠퇴케 하고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요인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고감히 단절해야 합니다. 내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길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단호히 끊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찾이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 우리의 힘ियो 능력이요 병패가 되신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서울교회 성도 모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믿음의 깊이와 영적 성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안인호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인터넷 영상	
III 오후 2시	인터넷 영상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	시 99:9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	6(8)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	31(시 68)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	1(1) 다 합 께
기 도 Prayer .....	말 은 이
찬 송 Hymn .....	10(34)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고전 6:1-8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합 께
봉 헌 Offering .....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	634(70)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합 께
설 교 Sermon ...“성도의 품격을 지키라”...	서장원 목사
* 찬 송 Hymn .....	393(447)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목 도 .....	다 합 께
성 시 .....	시 84:4-5 인 도 자
찬 송 .....	315(512) 다 합 께
기 도 .....	김웅기 집사
성 경 .....	히 10:23-25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 ...	설 교 자
* 찬 송 .....	220(278) 다 합 께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합 께

##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인터넷 영상) ·인도, 설교 전재홍 목사

기 도 .....	I부 .....	박종숙 권사
성 경 .....	눅 7:31-36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시대를 보는 눈” ...	설 교 자	

##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해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 교 .....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701호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 교 회 소 식

### ◆ 알 림

#### 1. 1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4. 5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5.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6.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7. 609호 부서 모임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8. 701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10.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에게 교회 명의로 신규계좌가 개설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한은행 100-034-868968(대한예장 서울교회 권용평)

\*예전 사용하던 계좌는 2020년 12월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 ◆ 장 례

1.故 이소녀 권사(14교구 유숙인 권사의 모친, 안성현 집사의 장모) / 1월3일 별세, 5일(화) 발인

##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275명	398명	1,673명	507명	1,752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시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



## 마음이 가난한 자

예수님은 물질적으로 가난하거나 지식이 결여된 자 또는 천박한 신분을 가진 자를 말씀하지 않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행복자라고 가르쳐 주셨다. 가난한 자는 그것이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무엇이 충족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부요한 자는 자기 의에 도취된 자요, 교만하여 다른 것을 수용할 만한 여유가 없는 자이므로 그는 아무것도 구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력을 시인하고 마치 영적으로 파산당한 사람처럼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채워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즉 그리스도를 삶의 주권자로 모시고 그의 지배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자다.

주님이 지배하시는 영역이 곧 천국이요,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중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씀시다.
유 지	교회에서 음식을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